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사53:2-6)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²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³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⁴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⁵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⁶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2024년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자주 들었던 이름과 키워드들은 아마도 ‘이재명’과 ‘부정선거’, 그리고 ‘탄핵’ 등이였겠고, 가장 많은 시간을 썼던 건 유튜브 정치 클립들 보기이지 싶습니다. 주님과 보낸 시간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 부끄럽지요... ‘이젠 좀 절제해야지...’ 하다가도 날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소식들, 특히 부정선거 소식과 그로 인한 거짓 국회의원들이 벌이는 이기가 막힌 상황에 가슴에 열불이 나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정말 원치 않는 스트레스로 저뿐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대다수 보수 우파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한해의 마지막 달인 이번 달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국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광란의 도가니로 돌변, 급기야 거대 야당은 이때다 싶어 대통령을 국회 탄핵 소추시키고, 엇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애쓰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발각 뒤집혔고, 급기야 국내

사53:2-6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정세 불안으로 환율 상승, 나라의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 때, 더욱 휘청거리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저 거짓의 정당은 탄핵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해코지하려던 소돔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좌파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저들로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라고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⁹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¹⁰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¹¹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19:9-11)

이제 사흘 후인 글피면 2025년 1월 1일 새해인데도 지난 성탄절 때도 그랬지만, 송구영신을 앞두고 온 나라 백성의 주된 관심

은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에만 있어 불안, 초조, 암담한 상황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를 비롯, 모든 언론, 방송,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들마저 한통속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법원과 헌재에도 좌파들의 독버섯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주님 오시던 로마 시대라면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이천년이 지난 21세기 2024년 말임에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지금이 이럴진대, 주님 오시던 이천년 전 상황은 더욱더 어땠을까요? 오래전 모세를 통해 주님은 율법, 곧 지상의 언어로 된 ‘말씀’ (The Word)을 주셨고, 이 ‘말씀’에 기반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앞선 두 교회 시대인 태고교회, 고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표상’(表象, representative) 교회, 유대 교회라고도 하는 이 교회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 타락, 결국 주님의 모든 선과 진리가 황폐해지는 상태, 곧 종말에 이르게 되자,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교회는 이전 교회가 생명을 다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기독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을 BC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속뜻으로는 하나의 교회 시대가 교체되는,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의 몇 배, 몇십 배나 더 혼란스러웠을 때인데요, 그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이런 나라 안팎 혼란의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고자 송년 주일예배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빛을 비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설교 원본은 작년 서울새 교회 송년 주일예배 원고입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을 올해 사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 연약한 신앙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에게 처음 신앙이 생길 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인간처럼 신앙이 연한 순 같이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젠가요? 주님이 아직 어리셨을 때,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과 그를 통해 자기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처음 아셨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때의 주님의 연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과 같다는 것은 그 당시 주님에게 있는 진리, 또는 신앙이 그렇게 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은 주님의 곁 사람인 인성(human)의 상태를 뜻하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인성 안에 진리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운 모양이란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겉 글자의 뜻으로만 이해, 실제로 주님의 외모가 그다지 별로였다, 주님은 보잘 것 없는 외모의 소유자이셨다, 그러니 자신의 외모가 맘에 안 드시는 여러분, 힘을 내시라는 식으로 설교도 하고, 또 그런 설교를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속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말씀의 속뜻을 모르면 정말 이렇게 정반대의 엉뚱한 풀이와 적용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랬던 주님이 여호와와 도움을 받아 몸과 마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열두 살이 되었을 때는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하기에 이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그때 랍비들의 반응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전합니다. 내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외모 또한 아름답게 변합니다.

※ 주님의 질서, 곧 주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출발, 속 사람을 거쳐 겉 사람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셨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 즉 누가 보더라도 범상치 않았을, 누가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았을, 자기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신, 그래서 그런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린이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기였을 때에도 이미 몇몇 사람에게는 그러셨는데요, 아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²¹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²²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²³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²⁴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²⁵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
 시더라 ²⁶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²⁷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
 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
 를 데리고 오는지라 ²⁸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²⁹주재여 이제는 말씀하
 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
 는도다 ³⁰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³¹이는 만민 앞에 예
 비하신 것이요 ³²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³³그의 부모
 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
 기더라 ³⁴시므온이 그들에게 축
 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
 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³⁵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
 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
 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³⁶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
 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³⁷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

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
 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³⁸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
 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
 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눅2:21-38)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께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했습니
 다. 그들 모두 영적으로는 맹인이
 요, 귀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유
 대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말씀에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
 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
 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
 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이 사람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
 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
 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
 하나’ 하며 주님을 배척했다고 합
 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
 군가를 판단할 때, 겉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
 지, 집안은 어떤지, 또는 돈은 많

사53:2-6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이 버는 지로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힘이 있었고, 주님에 의해 많은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다. 나사렛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한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여기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걸 보면, 이때는 이미 ‘요셉’은 세상을 떠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슬프셨을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모독하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죄인처럼 끌고 가 때리고 침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난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르거나 신성을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받

으신 것입니다.

※ 주님의 이런 모습을 저는 참으로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로 제 마음이 힘들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땠겠니?’ 그럴 때 저는 ‘어휴, 주님...’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제게 ‘너는 나를 사랑하여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면 너도 그를 사랑으로 대하거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즉 사랑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여라’ 하십니다. 그럴 때, 제 눈빛이 돌아오며, 초롱초롱해집니다. 마음도 가벼워지고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런 모욕과 조롱을 스스로 자원하셨을까요? 본문 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주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시록 해설’ 365번 글 31번 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결합한 사람들에게 평화란 천국과 영원한 삶을 뜻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당신의 질서 가운데로 끌어내려 굴복시키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인성 안으로 불러들인 시험을 통해 인성을 영화롭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해설 365:31, 이순철 역) *Therefore “peace” here signifies heaven and eternal life to those who are conjoined with Him; for the human race could by no means be saved if the Lord had not reduced all things in the hells and in the heavens into order, and at the same time glorified His Human, and these were accomplished by temptations admitted into His Human.* (AE.365:31)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지옥을 이

기심으로 당신 안의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신성한 인간(Divine Human)인 동시에 하나님ی 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주님이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유전 악 인성을 영어로는 human이라 하고, 영화되신 인성을 Divine Human이라 합니다. 이 Divine Human에 담긴 아르카나(arcana, 秘義)는 그 의미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에서 양은 본래 순진한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좇아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양입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온

사53:2-6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갓 떨시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낮고 비천한 땅으로 스스로 내려오셔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겸손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떨시와 천대를 받으시고도 끝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게 되시기 전 주님의 인성은 무한한 신성이신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는 말씀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끌려가 심문받으실 때는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것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겠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개합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돌아와도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게 사랑이 없고 신앙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주님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던 때 오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주께서 이런 나라 안팎 사정에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소위 독립군들에게 힘을 보태시기는 커녕, 오히려 주님은 정치와 군사에는 일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함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닮아야 할까요?

한 해를 보내면서 겸손하지 못했던 일,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하여 오래 참지 못했던 일,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일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또한 필요하다면 손에 손, 총칼을 들고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야 하지만, 더 깊은 상대, 곧 저들 식민 지배계급의 사람들 안에서, 인류의 안에서 숨어 활동하며, 무대 뒤에서 조종하여 인류를 자기들 뜻대로 부리는 지옥을 상대하시기 위해 인류를 깨우시고, 각 사람을 그 무너진 기초에서부터 다시 세우시는 일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주님처럼, 우리 중에 누구는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광화문으로, 또 누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변화된 삶, 곧 일터와 직장에서 자기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호를

외쳐도 절대 무슨 악한 기운, 그러니까 지옥에서 오는 기운을 일체 배제하며, 비록 마이크를 잡아도 이런 나라 사랑의 마음 주시는 주님께 그 공과 고마움,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며 자기를 부인하는, 천사들의 겸손으로 마이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송년 주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³⁰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9-30)

아멘

2023-12-31(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2024-12-29(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